배지민.裵芝敏..개인展:

"美.속에서.낳는: '수묵의 감성'...인상..현실적.계기들"

Bae, Ji-min....7th solo_exhibition:

*"engendering.in.***Beauty***(..Kalos..): 'the India ink Sensibility'...the Impression..the actual occasions"*

본 사업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부산 용두산 미술전시관 Busan Museum Of Art YONGDUSAN GALLERY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1-2 (전화: 051-244-8228)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배지민.裵芝敏_개인展:
"美 속에서 낳는: 수묵의 감성...인상..현실적 계기들":

△평론글: 김인환〈金仁煥: 철학박사.미학(Aesthetics) 전공〉

1◆화제(畵題)에 보이는 장소성과 그 의의:

1-1: 예술작품의 창조적 과정에 있어:
화가의 논점(論点)으로서의 화제(畵題)의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화가의 발견(invention)의 속성은 곧 통찰(insight)이며,
이는 절대적이면서 직접적으로 화가의 현재의 '삶의 형자(形姿)(living form)'와 연관된다.

1-2: 일반적으로, 토픽(The topics)이란:
수사학(修辭學..Rhetoric)에서 상용되는 주제-개념-표현을 뜻한다.
한편, 우리가 토픽의 어원인 희랍어 토포스(τόπος, topos)의 함의(含意)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글자 뜻대로 하면, '장소(places)'"이지만,
"보다 특수한 의미로는,
'지식 등의 축적'과 '보물(寶物)이 보관된 장소(places)'"*1〉라는 뜻이 있다.
*"The topics(τὰ τόπους, literally 'places', or more specially places where stores and treasure are kept) are":

*1〉▶Peter Dixon, *Rhetoric*(1971), Methuen & Co Ltd. The Critical Idiom 19: Printed in Great Britain by Cox & Wyman Ltd, Fakenham, Norfolk.:
@26쪽에서: ▲희랍어 토포스(τὰ τόπους)가 지닌 특수한 의미를 △평자(評者)가 참조.인용함:

1-3: 이번 전시에서 배지민(裵芝敏)이 발견한 화제(畵題)로서의 토픽은:
'부산의 특수한 예술적 광경(光景)'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곧 부산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부산의 특수한 문화권에서 살아 온
배지민(裵芝敏)이 선택한 창작적인 장소성은
마치 그녀가 간직한 '보물이 보관된 장소'를 살포시 열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듯하다.

1-4: 이는 '그녀의 감각으로 사색한(thinks with his senses)'
창조적이고 특수성을 띤 '현실적 계기들(actual occasion)'이며,
화가의 '수묵_감성'을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 현현(顯現)된
미적 가상성(美的.假象性, Ästhetischer Schein)인 것이다.

1-5: 요컨대, 화가가 바라보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장소성은:

"對比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이곳은 치열한 삶의 현장과 휴양 및 풍요가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 *2〉이며,

화가는 위와 같은 속성을 '이번 전시의 화제(畵題)'에 담아서
'수묵_감성'의 정취(情趣, Stimmung, mood)를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2〉▼"궁체": 배지민(裵芝敏) 작가 자신의 언급: △▼배지민의 〈작가노트〉에서 발췌 후 글쓴이가 다듬어서 인용함:
▼배지민과 △글쓴이는: 이번 전시 기획과 평론글을 위해서:
_2013년 5월/6월/7월/8월 동안: 배지민 작가의 매 작품 이미지마다 작품의 물성(物性, *physical property*)과
예술성(藝術性, *special artistic quality*), 예술작품의 준거(準據)에 대한 생각을 이_메일(e_mail)로 서로 주고받았다.
_이번 전시의 '각 작품마다의 화제(畵題)'는:
▼배지민 작가의 생각에 바탕해서 △평자(評者)의 코멘트와 교열이 가해져서 지어진 것이다.

2◆미美속에서 낳는 정신적.산고(産苦)와 새로운 창작적.기분(produktive Stimmung):

2-1: 미학의 원류(原流)인 플라톤적 맥락에서 보면:
모든 예술은 "미美속에서 출산(to be engendered in beauty)"*3〉된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4〉이다.

*3〉/4〉〈플라톤. 심포지움: 饗宴향연. [206e]〉:
▶Plato in Twelve Volumes, Vol. 9 translated by Harold N. Fowl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1925.
△박희영 역(2006). 〈향연: 사랑에 관하여. 206e〉: 30쪽=참조:

2-2: 이러한 정신적 잉태와 산고(産苦)의 과정은:
예술작품의 '제작적 사유(productive intellect)'*5〉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화가의 산고로서의 '사려깊음(forethought)'의 태도와 맞물린다.

*5〉 글쓴이가 피력하는: *'제작적_사유(productive intellect)'란,*
예술의 원리적인 이치와 실천행위를 하나의 전체로 녹여냄으로써
그 결과 새로운 심미적 질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도의 창조적 지성을 의미한다.
△김인환. "한글, 『훈민정음』 정체성에 대한 미학적 구조 엿보기": 179쪽: pp.174-201=게재:
▶출처: 우리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라라프로젝트 01. 안그라픽스. 2006.

2-3: 요컨대, 화가는:
'실천적 지성(practical intellect)' 안에서 자신의
'예술적 특성의 구현체인 어떤 존재'를 에스키스로써 구상한다.

2-4: 한편, 거기에 걸맞는
물성(物性, physical property)으로서의 수단*(means)*을 판단해서:
여러 각도의 시도를 거쳐
자신에게 정합한 질료인(質料因, causa materials)으로서의 선조(線條)와 색조(色條)를 찾아낸다.

2-5: 더욱이, 부지불식간에, 화가는:
자기 자신이 수행하는 그의 능력의 상태를 지휘하며
명령까지 하는 것을 생명력으로 삼으면서
창조성(creativity)에 몰두하는 바,
우리는 그러한 창조성의 상태만이 화가에게 매번 새로운 버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6: 위와 같은 정신적 산고(産苦)의 맥락 안에서 배지민은:
새로운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을 위한
"*行.萬里.路*(행만리로)"를 갈구하기도 하며,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작적.기분*(productive mood)'을 환기시키면서
창.작.적.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2-7: 이는 배지민이 본 "뉴욕_인상_씨리즈: 에스키스"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거기에는 동양적인 감수성으로 채색되고 점철된 된
뉴욕의 독특한 풍광(風光)이 서려있다.○

3◆수묵감성의 근거로서 *'유현(幽玄)한.색조(色條)'*의 구현 가능성 시도:

"수묵감성의 근거로서 '幽玄유현한 色條색조'와
'墨色五彩묵색오채'의 물성적 실험"

3-1: 선현들의 화론(畵論)에 근거해 보면:
미적 대상의 "진면모를 오묘(奧妙)하게 얻은_妙得其眞(묘득기진)_"
옛 대가(大家)의 경우에,
"간혹 먹색을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다섯 색을 겸비한 듯했다_
惑容墨色(혹용묵색), 如兼五彩(여겸오채)."*6〉 라는 문구가 나온다.

3-2: 배지민 작가는:
여기서 '묵색(墨色)'과 '오채(五彩)'를 추출해서
'묵색오채(墨色五彩)'라는 키워드를 마치 하나의 잠언(箴言)처럼 여긴다.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자신의 화면에 '수묵의 높은 감성의 구현을 위한 색조(色條)의 물성적 실험'에 응용하곤 한다.

3-3: 옛 수묵화가 들은 '묵색오채(墨色五彩)'의 구현을:
먹 그 자체의 농담(濃淡), 건습(乾濕), 청탁(淸濁)과 연계하여
그 해답을 철학적 명제 속에서 찾았다면,

*6〉 당(唐)나라 장언원(張彦遠)이
글씨와 그림을 잘하고, 특히 초상화와 화조화를 잘한
은중용(殷仲容)이라는 서화가(書畵家)를 기록한 항목에
근거해서: △글쓴이가 재해석의 관점에서 인용함.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제9권: 당(唐)나라
상(上) 128명): 조송식.역(2008): 334쪽=참조/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聞禮子仲容(문례자중용),
天后任大僕秘書丞(천후임대복비서승),
工部郎中(공부시랑), 申州刺史(신주자사).
善書畵(선서화),
工寫貌及花鳥(공사모급화조),
妙得其眞(묘득기진), 惑容墨色(혹용묵색),
如兼五彩(여겸오채).

3-4: 배지민은:
자신이 감응(感應)한 장소성의 특질과 그곳의 시간성의 계기와 관련된
고유한 아우라(Aura)를 구현하기 위해서 먹을 기조로 쓰기는 한다.
3-5: 그러나.그녀는.여기.에다:
검은 빛 도는 수간람(水干藍: No.948) 분채와 남색 빛 도는 감청(紺靑: No.947)-분채를
아교와 섞어 쓰는 시도를 해보곤 하는데,
그 이유는 묵색(墨色)의 변주(變奏)를 통한 '현(幽玄)한.맛'으로서의 '현색(玄色)'을 찾기 위함이라 한다.

3-6: 배지민이 추구하는 '묵의 현색(玄色)'의 구현 상태는
우에다 마코토(上田眞)(1961)가 '유현(幽玄)'에 대해서 언급한:
*"사물의 불가사의하게 깊은 곳에 있는 '원의(原意..primary meaning)'를 현시(顯示)"**7〉
한다는 맥락과 상통하다.
또한, *"예술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눈에 보이도록 끔 표현된 대상의 내적(內的)인 미"**8〉가
유겡(yügen)의 미학적 의의(意義) 중의 하나이듯,

3-7: 배지민 작가는:
예술가의 높은 감수성과 먹을 부리는 물성(物性)에 대한 부단한 수련을 쌓는다면,
'수묵의 이상적인 색조' 로서의 *'묵의 현색(玄色)'의 구현*' 도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해답을 얻어낸다.
이는 수묵의 '이상적인 색조의 미(美)'로서의 '의경(意境)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한 것이다.

3-8: 이번 전시의 포스터로 제작된 두 그림의 화제에서도 보듯이:
가: "<동틀 무렵부터...한낮까지의 '감천마을' 하늘의 수묵감성>"
나: "<감천마을의 소박함과 투박한 현색(玄色)이 내리는 밤하늘>"

3-9: 위와 같은 '묵색오채(墨色五彩)'의 물성적 실험을 통해서 배지민은:
새벽녘과 땅거미 지는 밤하늘의 신비스러운 어떤 '원의(原意..primary meaning)'를
현시(顯示)'함과 동시에, 〈감천마을〉이라는 대상의 내적(內的)인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곧,
가: 새벽녘 동이 트는 가름자의 지점인 '박명(薄明)한 맛의 감성적 가치'를 화면에 부여하기도 하고,
나: 땅거미가 내리는 지점의 시간성의 인상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가 고안한 '현색(玄色)의 색조(色條)'의 크고 작은 먹점의 터치들을
유리드믹하게 넓은 밤하늘에 쏟아 붇기도 한다.
그런 이후에, 화가는 차분하게, 화면 몇 곳에 노란색 터치를 가하여
부산 〈감천마을〉의 소박한 인상에 정겹고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3-10: 요컨대, 이 두 작품은:
배지민 작가의 사려 깊은 산고(産苦)로 낳은 *어떤 물성적 실험과 거기에 기인한*
*예술성과의 일치점*을 찾아낸 한 예로 평가될 수 있겠다.◯◯

▶Thomas Munro(토마스_먼로), *Oriental Aesthetics*(1965),
(Cleveland : Press of Western Reserve University): pp. 45-50.
8. Traditional Japanese aesthetic concepts: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사상":
△백기수 역: 동양미학: 1971_1쇄: 59-61쪽〉참조/인용:

_나: ◆ 현대의 우에다 마코토(上田眞)(1961)는 유겡의 몇 가지 미학적 의의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다:

▶M. Ueda, "Zeami on Art: a Chapter for the History of Japanese Aesthetics,"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XX, 1, Fall 1961, pp.73-79.)
**8〉 "예술에 의해서 외적으로 표현된 대상의 내적인 미*
..the inner beauty of an object outwardly expressed by means of art...":
**7〉 "사물의 불가사의하게 깊은 곳에 있는 '원의(原意)'의 현시(顯示)*
..the manifestation of the 'primary meaning' which
lies in the mysterious depth of things...":
"예술가의 영혼에 의해서 포착된 진리
..the truth caught by the artist's soul.."
라고 진술한다. [백기수 역(1971). 61쪽.참조]

_가: ◆ '유현(幽玄=유겡)'은:
본래 일본 가마쿠라_시대〈the Kamakura period..겸창시대(鎌倉時代):
1185년~1333년)〉의 미(美)의 이상을 집약한 일본의 예술론에서
영향력 있는 개념이며, 후에 하나의 비평기준(..a standard of criticism..)으로
채용된다. 곧, "심오한 것, 적요(寂寥)한 것, 신비로운 것, 말로써 쉽게
이해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것 등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고, 모호하고
무한한 상징주의를 시사한다. [백기수 역(1971). 60쪽]

_다: ◆▼배지민: 박사논문(2010: 홍익대 대학원: 미술학과) 82-93쪽에 바탕 해서: @참조: 4-1: *9〉:
△평자(評者)가: 수묵감성의 근거로서의 '유현(幽玄)한 색조(色條)'의 구현 가능성 시도'에 대한
잣대(criterion)를 찾기 위한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참조.인용함.
_라: ◆이하는..배지민=작가가 생각하는 '묵색오채(墨色五彩)'의 구현 가능한 색조범위: 배지민(2010, 90쪽):

〈곧 "묵색오채(墨色五彩)"와 같은 색조(色條)의 상태는:
"심오한 것, 적요(寂寥)한 것, 신비로운 것, 말로써 쉽게 이해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기도 하고, 혹은 '숭고미'와 같은 "정온(靜穩)하고 차분한 미" 까지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지가 드러나는 묵의 색조 범위는 모호하면서도 거기에는 무한한
상징성을 담아내는 일이 가능하다.〉◎

4◆艱難간난했던 서울생활에서 얻은 성찰점: 水墨의 物性과 藝術性에 대한 이론적.穿鑿천착

4-1:
1979년 7월 부산에서 태어나서 줄곧 청년기를 지내온 배지민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4년 반 정도의 서울생활을 하게 된다.
3년여의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치고,
그후, 1년 반 정도 박사논문 쓰기와 다듬기에 정진한 그녀는
" '수묵 감성' 으로 본 현대도시의 공간감 표현과 그 가능성 모색(2010년)"*9〉이라는 논제를 통해
수묵(水墨)의 물성(物性)과 예술성(藝術性)에 대한 이론적 천착(穿鑿)을 하게 된다.

*9〉▼(_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동양화_전공): 박사논문_)
▶Subje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pace of the Modern City and its Possibility Viewed as 'the India ink Sensibility')"
△Ph.D.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Korea,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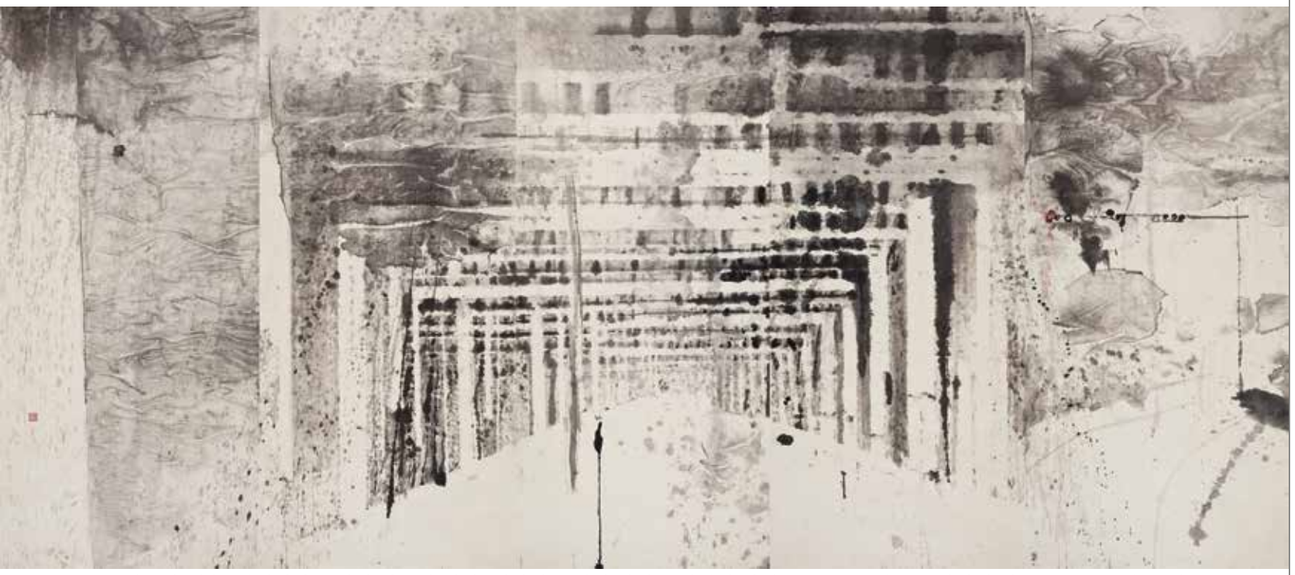
4-2: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실기의 조화와 일치에는 항상 '알 수 없는 간극'이 놓여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옛 선현들의 사려깊은 창작 태도와 행위에서 본받아
자신의 화가로서의 진정성에 대한 역량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성찰하게 된다.
글쓴이는 그녀의 논문지도를 1년반 여 하면서 그녀를 지켜본 바,
배지민의 서울생활은 여러 면에서 간난(艱難)한 시간들의 점철이었으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투철한 정진(精進)의 시간이었다.

4-3: 학업을 마치고, 2011년 8월 부산 고향집으로 다시 내려간 배지민은 부산의 바다내음과 공기에 힘입어 다시금 일생생활의 활력을 충전하게 된다.

이번 전시의 그림 제목에서 보여 지듯이:
2012년 3월에 그려진 〈*"봄눈꽃 나리는...다리 밑 연인들"*〉이나,
2012년 5-6월에 그려진 〈*"우주공간과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 키"*〉는
배지민의 교제기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를 그리면서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녀(男女)가 만나서 펼쳐질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상념이 담긴 여러
작품을 낳게 된다.◯

◀〈우주공간과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 키〉
(130×115cm-장지에 먹, 호분, 분채-2012년 3월)

▶〈봄눈꽃 나리는 다리 밑 연인들〉
(73×142cm-한지에 수묵, 호분-2012년 3월)



▲〈마중과 배웅: 둘이지만 혼자인 반복된 여정: 희망의 중첩이 쌓인 고가다리 아랫목〉_210×465cm_한지에 먹, 호분_2012년 10월:

5◆"마중과 배웅: 둘이지만.혼자인.반복된.여정: 희망의.중첩이.쌓인.고가다리.아랫목":

5-1:
그녀는 교제 끝에 2012년 9월 드디어 음양(陰陽)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자신의 짝을 멀리 보내는 "마중과 배웅"을 5개월여 반복하면서,
"둘이지만 다시금 혼자인 반복된 여정"을 거친다.

5-2:

화제(畵題)에서도 보듯,
그 당시, 그녀의 현실적 계기로서의 삶의 단상과 반추에 기인한
다리의 교각의 육중함과 역학적 크기를 위해
너른 화면에 그녀로 하여금 중첩된 선조(線條)를 반복적으로 긋게 한 후,
거기에다 역경과 고난, 희망의 감정이 교차하는 한 사람의 존재의 흔적을 각인키 위해서
농묵(濃墨)의 긴點점을 화면의 중간에 떨어뜨리기도 한다.

<마중과 배웅: 둘이지만 혼자인 반복된 여정: 희망의 중첩이 쌓인 고가다리 아랫목>
크기: 세로 210×가로 465cm (세로210×가로93cm_5장=합침)
재료: 한지에 먹, 호분
제작년도: 2012년 10월

5-3:
차를 몰면서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오갔던 그런 배지민의 눈가엔:
< "도시가...파괴되어지고...또다시 지어지고...밤과 낮과 같은" > 도시의 소모적인
면모도 스쳐지나가면서,
어떤 사회적 고발 같은 느낌의 어두운 얼룩들을 화면에 물들이기도 한다.○

6◆: 동양적인 감수성으로 포착한:
"뉴욕_인상_씨리즈: 에스키스"와
"뉴욕: 브로드웨이의 밤: 현란한 화려함+수직적 크기와 질서+평면적인 밤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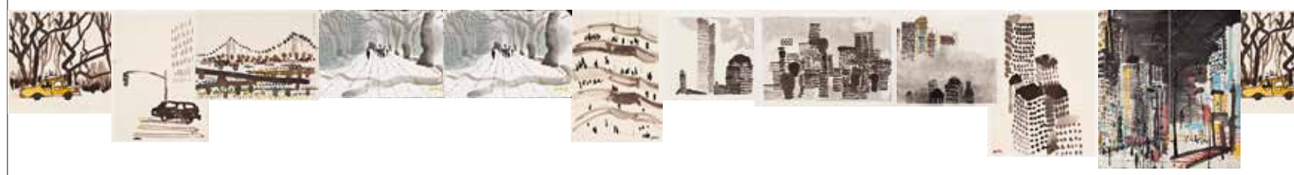
6-1: 그러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녀는 2013년 한겨울 1달여 뉴욕의 고유한 광경을 그녀만의 동양적인 감수성으로 포착해 온다.
거기서 화가는 서울이나 부산과는 차별된 도시 이미지를 심상(心象)에 담아서 간직한 채,
부산 화실에 돌아와서 그것을 작은 에스키스나 큰 작품으로 풀어내었다.

6-2:
....하늘높이 치솟은 수직적 질서의 건축적 인상,
구겐하임_미술관의 달팽이 계단, 유난한 노란택시,
센트럴 파크의 고목나무 등등이 작은 이미지로 탄생되고....

6-3:
여러 장의 작은 에스키스의 화면에서 탈출하고픈
그녀의 예술의욕Kunstwollen, the volition of art은
이번 전시에 새로운 화법으로 등장한 다소 크기가 큰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첫눈에, 우리의 눈에 인상적으로 엄습하는
'현란한 색조와 속도감 붙은 자유로운 필치'의 브로드웨이의 밤풍경.
이는 언 듯 보면 수채화 같은 분위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먹감이 있어서 수묵의 형식을 양과 질로써 충족시키며,
더욱이 비대칭으로서의 대련(對聯)의 형식으로 연출되었다.

6-4:
평자(評者)가 이 그림에서 느끼는 향수(享受)는 다음과 같다:
화면 상단의 넓은 면적에 쏟아 부은 먹에 기인한 밤하늘의 깊이감,
밤하늘에 반사되는 엷은 빛의 흰점들,
평면화 된 수많은 건물들의 중첩,
변주되는 흰점과 검정선의 터치와 불규칙한 네모면적들은
뉴욕의 기타등등의 여러 표정의 창문을 만들어 내고,
양쪽 화면 하단에 붓질로 가한 하늘색 면적들은 대도시에 신선한 활기를 부여하고.
작은 묵선과 묵점 들로 은유된 사람들의 활기찬 활보,
그리고 화가는 그 위로 로맨틱한 가로등을 등장시켜
화면을 시적詩的인 터치로 마무리 한다.

위와 같은 美的.환기는 화가의 높은 감수성의 상태가
보는 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어떤 미풍과도 같은 소통과 거기에 기인한 즐거움과 건강한 마음을 선사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바로 예술의 본질적인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7◆진정한 '하나'는 '새로움'과 '창조성'의 원천: *"The one is the source of novelty and creativity":*

7-1:

뉴욕여행 이후, 2013년 2월말 배지민은 마침내
마치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Hephaistos)가:

"나는 둘인 자네들을 하나union로 되도록 만들어 [....],
자네들을 녹인 다음 화로의 불을 함께 부어서 하나one로 만들어 주고자 하네"
(플라톤..Platon <심포지움..Symposium>[192 d-e])"

라고 말 한 것처럼, 음양(陰陽)의 합일(合一)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게 된다.

7-2:

이러한 생리적인 에로스*Eros*의 궁극 목적은,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움novelty의 계기를 낳는 일로서의 '제작적 사유(Productive Intellect)'와 상동*相同*관계에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계기를 맞이한 배지민 작가의 '감성적 인식'은
부산의 특정한 장소성의 특성이 대비적이지만,
그곳이 상보적(相補的)인 성격으로 구성된 '둘로 된 하나'로 보이기 시작한다.

7-3: 〈"자갈치_시장 부둣가: 배들의 들고 남과 삶의 유비"〉:

_자갈치 시장_부둣가 건너편에 위치한 영도다리 아래의
선박 정비소에 들고 나는 배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거친 항해 이후 새로운 충전을 위한 안식처처럼 보인다.

정비를 마친 어선은 파도를 가르며 다시 조업을 떠나려 바닷물을 가르며 힘차게 미끄러져 나아간다.
여기서 배의 들고 남은 '인간의 고단한 삶'과 닮아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치유와 휴식, 도전의 반복성과 순환성'을 느꼈다 한다.
이러한 감흥에 젖은 배지민은
건필(乾筆)과 습필(濕筆)의 선조(線條)를 번갈아가며 화면 가득이 그어대면서
'막 항해를 시작하는 배'가 무사하길 기원해 보기도 한다.

7-4: 〈"귀가길...뱃전에 서있는 사람+강인한 삶"〉:

_어느 날, 그녀는 해질녘 자갈치 시장 부둣가를 산책하며
조업을 마친 배의 뱃전에 무심코 서있는 한 어부의 삶속에 숨어있는 강인함과 애잔함을 발견한다.
거기서 받은 인상은 그녀의 화면에 투영되어
투박한 먹선과 습윤한 먹의 번짐을 어우러지게 하지만
이내 화면은 강인한 골기(骨氣)로 가득 차 버린다.

7-5: 〈"하늘빛+물빛 머금은...요트배"〉:

또 다른 어느 날, 그녀의 눈에는 "하늘빛+물빛 머금은...요트배"의 한아(閑雅)한 삶의 모습이 들어온다.
치열한 삶의 이미지인 어선과는
삶의 패턴이 대척점에 놓여있는 정박 중인 요트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도 덩달아 어떤 휴식과 풍요한 마음을 가져본다.

그런 그녀의 풍족한 마음은
화면의 물을 잔잔한 느낌이 나도록 절제된 옅은 먹감으로 처리하며,
그것과 어우러지도록
비 온 뒤의 청명하고 변화무쌍한 하늘의 기운(氣韻)과 그 아우라를 표현키 위해서
손가락에 먹을 묻혀 가며 가벼운 터치로 하늘을 가득 물들인다.

7-6: 평자(評者)가,
배지민 작가의 〈작가노트〉에서 엿본 그녀의 어선과 요트에 대한 단상에 근거한 유추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어선류와 요트배류 속성의 유사성(類似性, resemblance)과
상이성(相異性, diversity)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부산의 역동적인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며,
그런 대비적인 요소의 충돌과 화해가 부산의 특정 장소성이 갖는 단면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다.

7-7: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배지민(裵芝敏)이 선택한 화제(畵題)로서의 창작적인 장소성은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며,
이러한 창작태도는 태중의 아기에게도 전해져,
그 존재의 가치는 늘 '대립된 쌍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움의 장場을 낳는 일'에 관여*methexis*할 것이다.
명실공히, "하나는 창조성의 원천*The one is the source of creativity*"이며,
동시에, '큰 하나*the great one*'로부터 모든 예술적 광경은 흘러나온다하겠다.

글쓴이는 이러한 '실천적.지혜'와 '제작적.사유가*制作的_思惟*'*10〉 담긴 이번 글을
배지민.작가에게 헌정한다.●◎

*10〉 평자(評者)의 논조로서 '사려깊은.실천적 지혜'와 '제작적.사유'는:
예술론의 원류(源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Ethica Nicomachea*)〉 제6권:
"지적인 덕(德)..Intellectual Virtue..)"의 하나인 테크네(art)의 정의와 관련된 사상에 바탕해서,
그것을 재해석한 현대의 여러 학자들(J.O 엄슨/자끄 마리땡/ 박전규/뷰캐넌)의 코멘트에 빚을 진 것이다.
△'제작적.사유(制作的_思惟)'를 "productive thinking"으로 영역(英譯)할 수도 있으나:
*"productive intellect"*로 표기함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번역의 권위자인 (로스)Ross_의 영역을 따름.
▶Aristotle. Nicomachean Ethics*(..Ethica Nicomachea..)*. translated by W. D. Ross. In: The Selected Works of Aristotle. Revised Edition. Seo_Kwang_Sa. 1982.

Copyright© 2013년 9월15일 by 김인환(Kim, In-Hwan: inak@nuri.net)

▼〈하늘빛+물빛 머금은...요트배〉
95×130cm_한지에 먹, 호분_2013년 6월:

▼〈귀가길...뱃전에 서있는 사람+강인한 삶〉
48×66cm_한지에 먹, 호분_2013년 6월:

7-6: 평자(評者)가,
배지민 작가의 〈작가노트〉에서 엿본 그녀의 어선과 요트에 대한 단상에 근거한 유추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어선류와 요트배류 속성의 유사성(類似性, resemblance)과
상이성(相異性, diversity)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33×48cm_한지에 먹, 채색_2013년 5월:

▶〈낮동안의…바다동네〉

▼2013-5-18_토: 배지민: <작가_노트>에서 발췌:

나는 언덕마을(부산_감천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선조(線條)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선을 그을 때,
중봉(종이에 붓을 수직으로 세우고 팔은 종이와 수평을 유지한 채 선을 긋는법)으로
약간은 뭉퉁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힘을 내포한 선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소박하고 따뜻한 마을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

또한
집들의 모습을 화면중앙으로 모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먹과 검은 빛_수간람(水干藍)+남색 빛 감청(紺靑)_분채를 섞어서
붓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밤과 낮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손가락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손가락에 분채를 묻혀서 한지 위에 선을 긋거나 문지르면
거친 터치감(마티에르)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서
나는 동이 틀 무렵 내포하고 있는
빛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호분으로 점을 찍어
마을 너머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잔잔하게 표현하였다.

.

나는 실제로 언덕 위 옹기종기 모인 집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거기에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함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모습이 때로는 따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한다.

.

75×142cm_한지에 먹, 분채, 호분_2013년 1월:

◀〈동틀무렵부터…한낮까지의 「감천마을」 하늘의 수묵감성〉

마을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곧 세월을 쌓아가고 있으나...
그 안에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시간은 흘러간다.
우리의 하루가 고된 나날일지라도 거기에 희망은 있을 것이다.

.

이 작업은 2012년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림이다.
나는 먹과 색을 적절히 사용해서
밤과 서광을 내포한 어슴프레한 새벽에서 한낮까지 한 화폭 안에 담고 싶었다.
나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안에 밝은 기운을 담고 싶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풀어보고 싶고 아직 구도나 기법측면에서 여러방면으로 고민_실험중이다.¶

△김인환 평론글 발췌:
3-9: 위와 같은 '묵색오채(墨色五彩)'의 물성적 실험을 통해서 그녀는:
새벽녘과 땅거미 지는 밤하늘의 신비스러운 어떤 '원의(原意..primary meaning)를
현시(顯示)'함과 동시에,
〈감천마을〉이라는 대상의 내적(內的)인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곧,
가: 새벽녘 동이 트는 가름자의 지점인 '박명(薄明)한 맛의 감성적 가치'를 화면에 부여하기도 하고,
나: 땅거미가 내리는 지점의 시간성의 인상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가 고안한 '현색(玄色)의 색조(色條)'의 크고 작은 먹점의 터치들을 유리드믹하게 넓은 밤하늘에 쏟아 붇기도 한다.
그런 이후에, 화가는 차분하게, 화면 몇 곳에 노란색 터치를 가하여 부산 〈감천마을〉의 소박한 인상에 정겹고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감천마을의 소박함과 투박한玄色이 내리는 밤하늘〉:
48×66cm_한지에 먹, 분채_2013년 5월:

▼2013-6-28_금: 배지민: <작가_노트>에서 발췌:

이 작업은
이전 #4_작업("동틀무렵부터...한낮까지의 '감천마을' 하늘의 수묵감성")과
연관성을 갖기 위해 시작한 그림이다.
곧 나는 화면 위에 시간대의 변화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미색 한지 위에 감천마을의 모습을 세필을 이용해 중봉선으로 긋고
손가락으로 남색빛 분채와 아교를 섞은 물감을 찍어서 밤 하늘의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점점 어둠이 내려오는 시간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손가락 터치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노란 불빛을 담하게 칠해주었다.

나는 밤이 시작되는 지점을 좋아한다.
특히 지금 6월의 밤은 낮보다 선선하기도하고 그리 깜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등이나 집의 불빛들이 따스하게 반짝이기 시작한다.

또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모습에는 빨래가 군데군데 널려있고
마치 저녁짓는 그릇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이러한 시간대와 분위기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볼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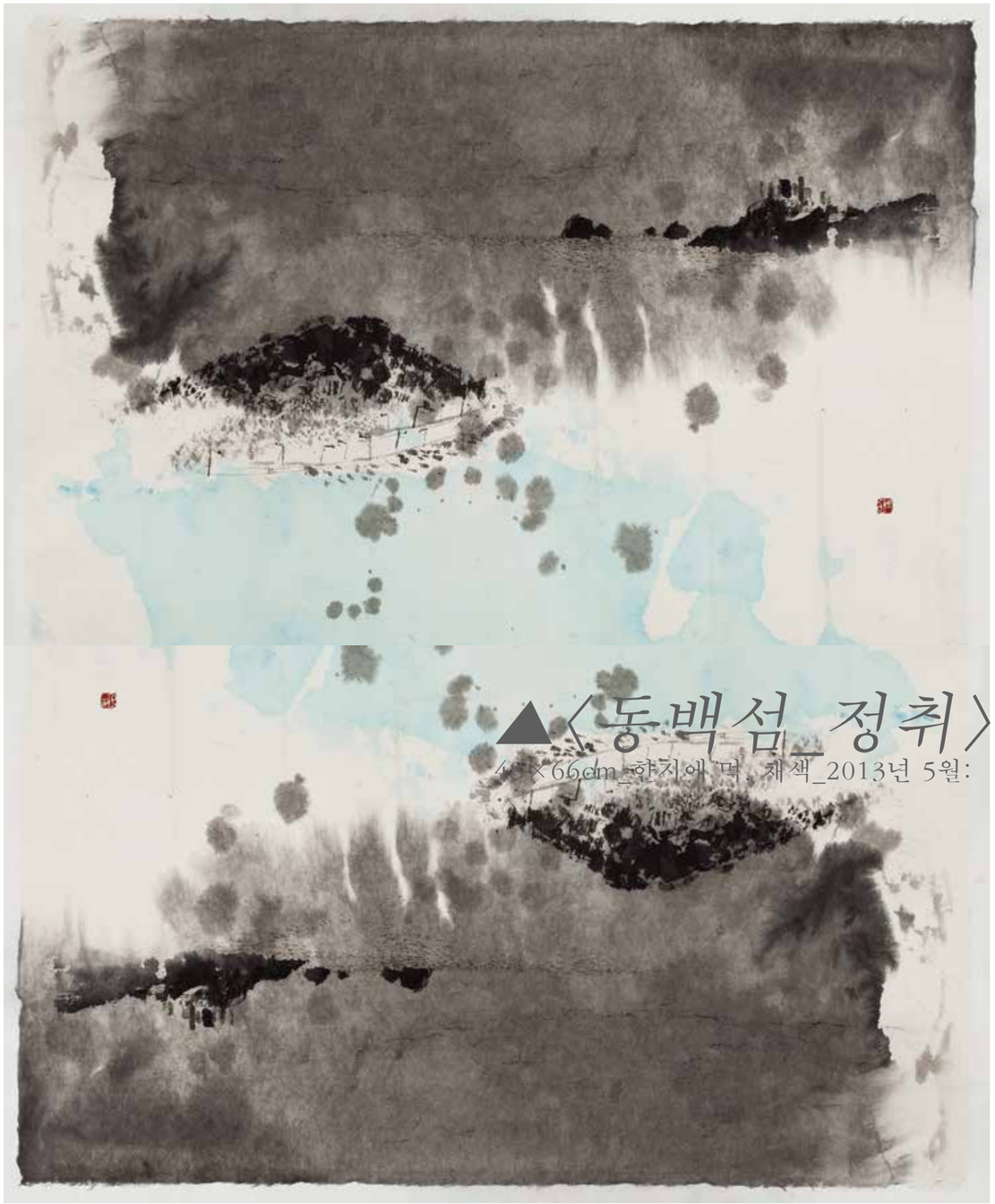
어둠이 내려오는 초저녁에서 밤까지의 하늘표현이
투박하고 거칠게 나온듯하지만
나는 마을의 소박한 모습과 하늘표현이 서로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바다 너머...언덕마을이 보듬은 금빛물결〉_65×95cm_한지에 먹, 금분_2013년 1-2월:

▲〈흐린날...해운대_모래사장 산책길: 야곱의 사다리_햇살: 달맞이_고개 원경〉_48×66cm_한지에 먹_2013년 4월:

▲〈금련산 밑 시가지〉
65×95cm_한지에 먹, 호분_ 2013년 7월:

▼〈엉두산 공원 전망대에서 본 원형-시가지〉
(75×135cm-한지에 먹, 호분-2013년 5월)



▲〈동백섬 정취〉
48×66cm_한지에 먹, 채색_2013년 5월:

▲〈자갈치_시장 부둣가: 배들의 들고 남과 삶의 유비〉
95×210cm_한지에 먹, 호분, 분채_2013년 2월:

▼2013-5-21_화: 베지민: 〈작가_노트〉에서 발췌:

이 그림은 미표백_순지 위에 그려졌다.

내가 생각하는
이 종이의 특징은 닥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서
먹의 색조를 깊이 있게 표현하기 보다는
다양한 선조를 구사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나는
배들이 얼기설기 모여 다리 밑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을
농묵, 중묵, 담묵으로 된 건필(乾筆) 혹은 습필(濕筆)로써
속도감을 주어 선을 그어주었다.

배를 하나씩 묘사해서 완성해 나가기보다는
다양한 선들이 겹쳐지게 그으면서
배들이 모여있는 듯한 화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배는
수감(銖紺)과 대자(垈赭)색 분채를 사용해
복잡한 선들이 많은 화면에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한
정박해 있는 배들과 대비시켜서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는 배'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나는 그림 하단의 파도_물 표현에서
농담 변화가 자연스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그림의 모티브 역시 자갈치(부산_지역이름) 사생에서 얻었다.

나는
자갈치 시장_부둣가 건너편에 위치한
영도다리 아래 배들과 선박 정비소를 보면서
거친 항해를 마치고 온 배들이
휴식과 새로운 충전을 하는 듯이 보였다.
또한 거기에서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배를 보면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음을 짐작했다.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_삶의 모습도
치유(휴식)와 도전이 반복되는 순환_과정을 떠올렸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도 없으며 정체될 수도 없고,
줄곧 새로운 곳을 찾아 떠다닐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그림에 담아보고 싶었다.¶

▶〈부산항=제5부두: 골리앗_클레인이 보듬는 곳〉
95×210cm_한지에 먹, 채묵(彩墨)_2013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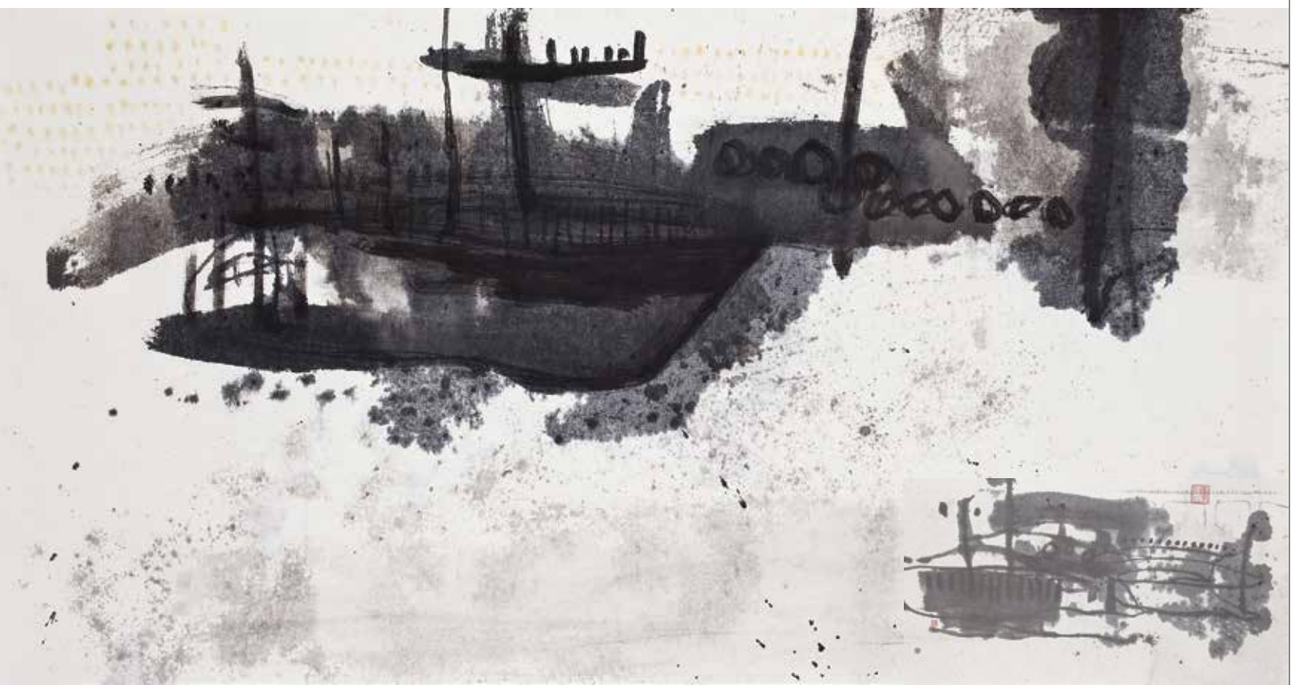
▼〈도시가…파괴되어지고…또다시 지어지고…밤과 낮처럼〉
(65×95cm-한지에 먹, 채묵-2013년 4월)

▲〈자갈치 어선 배들의 제각기 흩어짐: _48×66cm_한지에 먹, 채묵_2013년 7월:

▼〈자갈치 부둣가에 몰려든 가지각색 고깃배들〉:
48×66cm_한지에 먹, 채묵_2013년 7월:

▲〈제5부둣가: 정박된 배+물결에 비치는 애잔한 불빛〉
33×48cm_한지에 먹, 채묵(彩墨)_2013년 5월:

▼〈*자갈치_시장 부둣가 이면: 한적하고 평화로운 고깃배들*〉 I _75×142cm_한지에 먹, 금분_2013년 2월:



▼〈너울〉_73×142cm_한지에 먹, 호분, 채묵_ 2013년 7월:

◀〈귀가길…뱃전에 서있는 사람+강인한 삶〉

◀〈귀가길…뱃전에 서있는 사람+강인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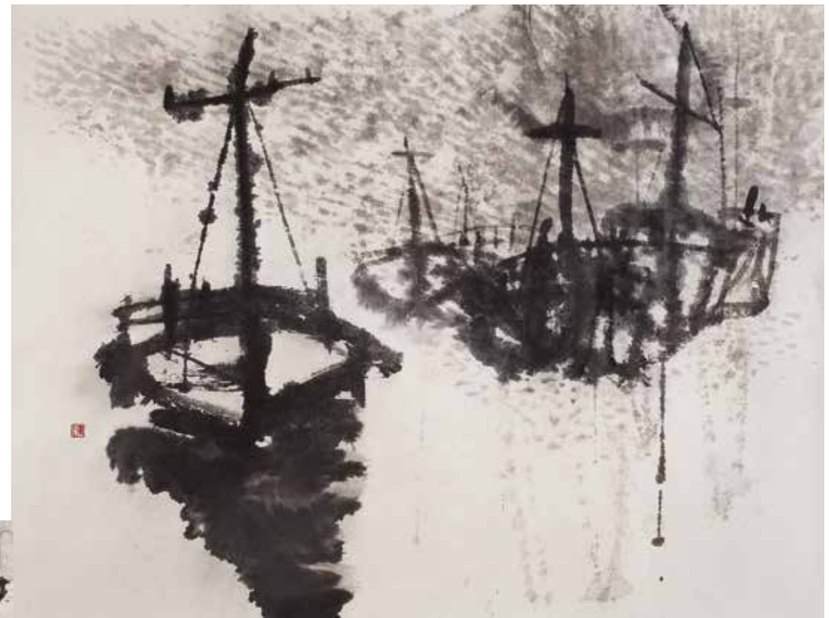
48×66cm_한지에 먹, 호분_2013년 6월:

▼〈자갈치 어선 배들의 제각기 흩어짐〉:
48×66cm_한지에 먹, 채묵_2013년 7월:

▼〈자갈치 부둣가에 몰려든 가지각색 고깃배들〉:
48×66cm_한지에 먹, 채묵_2013년 7월:

▼〈제5부둣가: 정박된 배+물결에 비치는 애잔한 불빛〉:
33×48cm_한지에 먹, 채묵(彩墨)_2013년 5월:

95×130cm_한지에 먹, 호분_2013년 6월:



◀〈하늘빛+물빛 머금은…요트배〉

46×63cm_한지에 먹, 호분_2012년 3월:

◀〈바다안개 속 광안대교 정취〉

▲〈바다안개 속 광안대교 정취Stimm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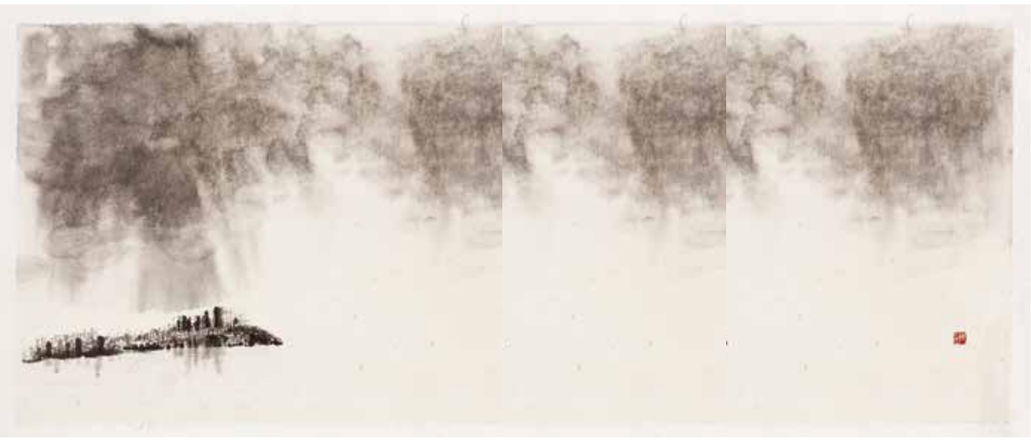
▲〈하루 해: 인상〉:_33×48cm_한지에 먹_ 2013년 7월

54×78cm_한지에 먹, 호분_2013년 5월:

◀〈둑: 강태공의 시간성〉

.....〈둑: 강태공의 시간성〉〈둑: 강태공의 시간성〉〈둑: 강태공의 시간성〉〈둑: 강태공의 시간성〉.....

▼〈흐린날...해운대_모래사장 산책길: 야곱의 사다리_햇살: 달맞이_고개 원경〉:



48×66cm_한지에 먹_2013년 4월:

6-4:

평자(評者)가 이 그림에서 느끼는 향수(享受)는 다음과 같다:
화면 상단의 넓은 면적에 쏟아 부은 먹에 기인한 밤하늘의 깊이감,
밤하늘에 반사되는 엷은 빛의 흰점들,
평면화 된 수많은 건물들의 중첩,
변주되는 흰점과 검정선의 터치와 불규칙한 네모면적들은
뉴욕의 기타등등의 여러 표정의 창문을 만들어 내고,
양쪽 화면 하단에 붓질로 가한 하늘색 면적들은 대도시에 신선한
활기를 부여하고,
작은 묵선과 묵점 들로 은유된 사람들의 활기찬 활보,
그리고 화가는 그 위로 로맨틱한 가로등을 등장시켜
화면을 시적(詩的)인 터치로 마무리 한다.

△김인환 평론글 발췌:

◀〈뉴욕: 브로드웨이의 밤: 현란한 화려함+수직적 크기와 질서+평면적인 밤하늘〉
(210×190cm-한지에 먹、호분、채묵-2013년 5월)

▼〈뉴욕: 센츄럴파크-고목인상〉
(14×20cm_한지 느낌 나는 종이에 먹, 채색_2013년 1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빽빽한-삶의 중첩〉
(33×48cm-한지에 먹-2013년 4월)

◀〈뉴욕: 잠깐-정지한 순간〉
(14×20cm-한지 느낌 나는 종이에 먹、채색-2013년 1월)

◀〈뉴욕=인상: 하늘에 닿은 수직도시: 그 치열함+공허함〉
(33×48cm-한지에 먹-2013년 4월)

▲〈채색점 불빛과 브루클린_다리〉
14×20cm_한지 느낌 나는 종이에 먹, 채색_2013년 5월:

◀〈구겐하임-로툰다와 관람자들〉
(14×20cm-한지 느낌 나는 종이에 먹-2013년 5월)

◀〈뉴욕거리 - 혼자 거닐다〉
(190×130cm-한지에 먹-2012년 3월)

◀〈뉴욕: 브로드웨이의 밤: 현란한 화려함+수직적 크기와 질서+평면적인 밤하늘〉
(210×190cm-한지에 먹、호분、채묵-2013년 5월)

▲〈채묵_점/먹의 농담으로 본...뉴욕의 밤 인상〉
33×48cm_한지에 먹, 채묵(彩墨)_2013년 4월:

▼〈뉴욕-인상: 묵점+묵면〉
14×20cm-한지 느낌 나는 종이에 먹-2013년 5월:

▲〈센트럴파크: 고목+길〉
14×20cm_한지엽서에 먹, 채색_2013년 5월:

배지민.裵芝敏.BAE, JI-MIN

1979년 생: 부산 생:
Born in Busan, 1979:

■ 학력 *Academic Career:*

-1998: 부산 예술고등학교 졸업(한국화 전공):
-1998: Graduated Busan High School Of Arts
-2000: 인디애나 주립대학(블루밍턴) 예술대학: 가을학기: 드로잉 수강:
-2000: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Henry Radford Hope School Of Fine Arts: Fall Semester Drawing Class (by Prof. Tim Kennedy)

-2003: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한국화 전공): 미술학사:
-2003: Bachelor of Fine Arts, Korean Paint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2005: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화 전공): 미술석사:
-2005: Master of Fine Arts, Korean Paint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석사논문: 2005.2.25
▶Master thesis: 2005.2.25
-논제:도시공간에서 느끼는 심상표현연구_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Subject: A Study on Expression of Mental Image in Urban Space_Centering around My Works:

-2011: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동양화 전공): 미술학 박사:
-2011: Ph.D.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Korea

▶박사논문: 2010.12.31
▶Ph.D. thesis: 2010.12.31
-논제: '수묵감성'으로 본 현대도시의 공간감 표현과 그 가능성 모색
-Subje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pace of the Modern City and its Possibility Viewed as 'the India ink Sensibility':

■ 전시 경력 *Exhibition Career:*

▶개인전 *Solo Exhibition:*

-2013: 일곱 번째 배지민_개인전: "美 속에서 낳는: 수묵의 감성..인상..현실적 계기들": (용두산 미술전시관_부산)
-2013: Bae, Ji-min....7th solo_exhibition: "engendering.in.Beauty(..Kalos..): 'the India ink Sensibility'...the Impression..the actual occasions" (Busan Museum Of Art YONGDUSAN GALLERY_Busan)

-2011: '수묵 감성'으로 본 도시_풍경展: 종로에서 선유도까지 Ⅱ (북촌 미술관_서울)
-2011: Exhibition for the Cityscape Viewed as 'the India ink Sensibility': From Jongno to Sunyoudo Ⅱ (Bukchon Art Museum_Seoul)

-2009: 배지민 개인전_종로에서 선유도까지 (갤러리 이즈_서울)
-2009: BAE JIMIN Solo Exhibitions_From Jongno to Sunyoudo (GALLERY IS_Seoul)

-2008: '다섯번째 다리' 展 (삼진 미술관_마산)
-2008: 'The Fifth Bridge Exhibition' (Artspool SAMJIN Museum_Masan)

-2007: 배지민 개인전 (부산광역시청 2-3전시실_부산)
-2007: BAE JIMIN Solo Exhibitions (Exhibit Hall 2 and 3, Busan Metropolitan City_Busan)

-2006: Bridge of city_A.U.ready? 공모기획전 (아트인 오리_부산)
-2006: Planned Open Competition 'Bridge of city_A.U.ready?' (ART IN ORI_Busan)

-2005: Gray_신인작가 발굴전 공모당선 초대전 (엄태익 갤러리_부산)
-2005: Exhibition 'Gray'_Invited Exhibition through a contest for New Painter (UmTaeIk Gallery_Busan)

▶아트페어 및 개인_부스전:

Art Fair and Solo Exhibition Stand:

-2012: '수묵 감성'展 (부산대 10.16기념관_부산)
-2012: Exhibition of 'the India ink Sensibil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10.16 Memorial Hall_Busan)

-2011: '수묵 감성'으로 본 도시풍경 (CABINET Gallery Cafe_서울)
-2011: Exhibition for the Cityscape Viewed as 'the India ink Sensibility' (CABINET Gallery Cafe_Seoul)

-2010: '소통' 배지민 초대전 (GS타워 The Street Gallery_서울)
-2010: 'Communication' Invited Exhibition (GS Tower The Street Gallery_Seoul)

-2009: AATS 2009 ART FAIR (국제무역센터_북경)
-2009: Asian Art Top Show-2009 ART FAIR (China World Trade Centre_Beijing, China)

-2007: 동양화 새 천년展(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_서울)
-2007: Oriental Painting New Millennium (Seoul Art Center Hangaram Art Museum_Seoul)

▶2-4인 기획전:

Planned Exhibition for Two to Four Painters:

-2010: '묘수(妙手)' 4인 기획전 (두산 제니스 갤러리_부산)
-2010: 'miàoshǒu(妙手)-excellent skill' Planned Exhibition for Four Painters (Dusan Zenith Gallery_Busan)

-2010: '수묵(水墨)'이 지시하는 새로운 공간, 3인 기획전 (Soul Art Space_부산)
-2010: New Space Created by 'the India ink', Planned Exhibition for Three Painters (Soul Art Space_Busan)

-2008: 3인 기획전 (더-디 갤러리_부산)
-2008: Three Painters' Planned Exhibition (The D Gallery/Busan)

-2007: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_4인 기획전 2007 (부산 시립미술관_부산)
-2007: Vision &Perspective 2007_Four Painters' Planned Exhibition (Busan Museum Of Art_Busan)

-2005: 幽玄_'찾아가다' 3인 기획전 (자미원 갤러리_부산)
-2005: 'Yūgen(幽玄)-profound grace and subtlety' Planned Exhibition for Three Painters (Jamiwon Gallery_Busan)

-2005: The NEW Generation 2005_2인 기획전 (신라갤러리 큐브C_대구)
-2005: The NEW Generation 2005_Two Painters' Planned Exhibition (Gallery Shilla CUBE C_Daegu)

▶국내외 단체전:

Domestic and Foreign Group Exhibitions:

-2013:
-불회전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제25회 한국화 동질성전 (부산문화회관_부산)
-The 25th Tracing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 (Busan Cultural Center_Busan)
-교학상장 전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Exhibition of 'Kyo Hak Saang Zhang'_ Synergistic improvement by teaching and learn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홍익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아트페어 (서울 마포가든호텔_서울)
-Hongik Art Fair (Seoul Mapo Garden Hotel_Seoul)

-2012:
-BFAA 아트 페스티발 (부산BEXCO 제1전시실_부산)
-BFAA 2012 Art Festival (Busan BEXCO, Exhibit Hall 1_Busan)
-2012 한.중 회화 교류전 (바다갤러리_부산)
-zhōng Hán guójì měishù jiāoliúzhǎn(中韓 國際 美術 交流展) (Beach Gallery_Busan)
-불회전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문인화 정신과 신바람展 (인사동 한국미술관_서울)
-Exhibition for both Spirit of Painting in the Literary Artist ' s Style and hight spirits (Insadong Korea Gallery_Seoul)
-形式感 2012 중-한 당대 수묵 예술展 (안휘성 마안산 시립박물관_중국)
-xíngshìgǎn 2012 zhōng Hán dāngdài shuǐmò yìshùzhǎn(中韓 当代 水墨 艺术展) (ǍnhuīshěngMǎānshān shìlìměishùguǎn (安徽省马鞍山 市立美术馆_China)
-제 24회 한국화 동질성전 (강릉미술관_강원도)
-The 24th Tracing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 (Gangneung Museum of ART_ Gangwon-do)
-东方意境_임진년 중-한 작가 황산 교류전 (祥龙集团展示館_중국)
-dōngfāng yìjìng(东方意境)_réncheńnián zhōng Hán zuòjiā Huángshān jiāoliúzhǎn (壬辰年 中韓 作家 黃山 交流展) (xiáng lóng Jítuán Zhǎnshìguǎn_China)
-영-호남 한국화전 (옥과 미술관_전남)
-Gyeongsang-Jeolla Province Korean Painting Exhibition (Okgwa Art Museum_ Jeollanam-do)

-2011:
-한-일 아-트 코스모스전 (동경 한국문화원_일본)
-The Cosmos Exhibition of Korea-Japan Art (Tokyo Korean Culture Center_Japan)
-홍익대학교 동양화 총 동문회전 (호마미술관_서울)
-Alumni Exhibition for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Hongik Museum of Art_ Seoul)
-불회전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안견회화 정신전 (세종문화회관_서울)
-The 4th Exhibition to depict the spirit of Ahn, Gyeon painting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_Seoul)

-제23회 한국화 동질성전 (대구 문화예술회관_대구)
-The 23rd Tracing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Daegu Culture &Arts Center_ Daegu)

-2010:
-불회전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논 플루스 울트라 (동덕 아트갤러리_서울)
-Non Plus Ultra(Dongduk Art Gallery_Seoul)
-Spirit Asia 2010 Beijing (Scola Art Center_ Yihaodi_중국)
-Spirit Asia 2010 Beijing (Scola Art Center_ Yihaodi_China)
-현대 회화_수묵(水墨)에 길을 묻다展 (한국소리문화의 전당_전주)
-Exhibition for 'The Indian Ink : New Vision for Contemporary Painting' (Sori Arts Center of Jeollabuk-do_Jeonju)
-제22회 한국화 동질성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_서울)
-The 22th Tracing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 (Hangaram Art Museum of the Seoul Arts Center_Seoul)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전 (서울 타블로 갤러리_한국/아시아 시립미술관_일본)
-2010 A Slice of Contemporary Art (Seoul Gallery Tableau_Korea/ Asia Museum of Art_Japan)

-2009:
-The Head展 (킴스아트필드미술관_부산)
-'The Head' (KAF Museum_Busan)
-한-중 현대회화 교류전 (중국798-ARTMIA갤러리_북경)
-Exchange Exhibition of Korean-Chinese Contemporary Painting (China798-ARTMIA Gallery_Beijing)
-불회전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제18회 부산 한국화전 (부산문화회관_부산)
-The 18th Exhibition of Busan Korean Painting(Busan Cultural Center_Busan)

-부산, 젊은 작가들의 시선 (부산대 아트센터_부산)
-Busan, Young Painters' Sight(Pusan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_Busan)
-'Jungle' 기획전 (포스코 미술관_서울)
-'Jungle' Planned Exhibition (Posco Art Museum_Seoul)
-'空'展 (798 F zone On Space Gallery_북경)
-Exhibition 'emptiness(空)' (798 F zone On Space Gallery_Beijing)

-2008:
-부산 국제현대 수묵화전 (을숙도문화회관_부산)
-Busan International Indian Ink Painting Exhibition (Eulsukdo Cultural Center_Busan)
-부산비엔날레_바다 미술제 (테라스G._부산)
-Busan Biennale – Ocean Art Festival (Terrace G_Busan)
-7th OUT DOOR_Show window work-일상의 예술 (Window Shop_대구)
-7th OUT DOOR_Show window work- Daily Arts (Window Shop_Daegu)
-제 6회 부산 국제 환경예술제 (을숙도문화회관_부산)
-The 6th Echo Modern Art Exhibition (Eulsukdo Cultural Center_Busan)
-군산현대미술초대전 (군산대학교전시관_군산)
-Kunsan Modern Art Invitation Exhibi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Museum_Kunsan)
-How much? 경매전 (오픈스페이스 배_기장)
-How much? Auction Exhibition (OpenSpace Bae_Gijang)

-2007: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며 (화인갤러리_부산)
-Opening the Door of an New Era (Gallery Fine_Busan)
-한국평면회화의 단면 (전북예술회관_전주)
-The Cross Section of Korean Paintings (Jeonbuk Arts Center_Jeonju)
-삼색전 (경성대 미술관_부산)
-Three Color Exhibition (Kyungsung University Art Center_Busan)
-가톨릭센터 대청 기념 개관전 (대청 전시관_부산)
-Busan Catholic Center Opening Ceremony Exhibition (Daecheong Museum_Busan)
-How much? 경매전 (오픈스페이스 배_기장)
-How much? Auction Exhibition (OpenSpace Bae_Gijang)
-WHO? (민들레 대안공간_부산)
-WHO? (Art Space Mindeulre_Busan)
-An Overt Abyss (Hellhof 갤러리_독일)
-An Overt Abyss (Hellhof Gallery_Germany)
-부채전_마파람 20인전 (원 갤러리_부산)
-Fan Exhibition—Maparam Twenty Painters Exhibition (One Gallery_Busan)
-아트 인 대구_분지의 바람展 (호수빌딩 전시관_대구)
-ART IN Daegu—Lake Basin's Wind Exhibition (Exhibition Hall, Hosoo Building_Daegu)
-부산 한국화전 (부산문화회관_부산)
-Exhibition of Busan Korean Painting (Busan Cultural Center_Busa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ydney 2007 (Karas Art Gallery_호주)
-International Art Festival Sydney 2007 (Karas Art Gallery_Australia)
-아시아 오픈 아트페어 (부산문화회관_한국/사가현립미술관_일본)
-Asia Open Art Fair (Busan Cultural Center_Korea/ The Museum Of Art, Saga_Japan)
일상의 치유와 표현전(프라이덴치과_부산)
-Daily Cure and Expression Exhibition (Priden Dental Clinic_Busan)

-2006:
-영호남 수묵화전 (옥과 미술관_전남)
-Gyeongsang-Jeolla Province Korean Painting Exhibition (Okgwa Art Museum_Jeollanam-do)
-View finder of YAP (정 갤러리_서울)
-View finder of YAP (Jung Gallery_Seoul)
-'PAG_은닉된 에네르기' 전 (정동 경향 갤러리_서울)
-'PAG- Hidden Energie' (KHAN Gallery_Seoul)
-2006 How much? 경매전 (아트인 오리_기장)
-2006 How much? Auction Exhibition (ART IN ORI_Gijang)
-부산 여류 한국화전_느낌 (예화아트홀_부산)
-Busan Female Korean Painters' Exhibition (Yehwa Art Hall_Busan)
-부산대학교 개교 60주년 동문작가 초대전 (부산문화회관_부산)
-Pusan National University 60th Anniversary Alumni invitation Exhibi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Cultural Center_Busan)
-山傳水展_산전수전 (거제도 문화예술회관_거제도)
-shān chuán shuǐ zhǎn_山傳水展 (Geoje Art Center_Geoje-do)
-한국평면회화의단면전 (이공갤러리_대전/전북도청사갤러리_전북/자미원갤러리_부산)
-The Cross Section of Korean Paintings (IGONG Gallery_Daejeon/ Jeollabuk-do Gallery_Jeonbuk/ Jamiwon Gallery_Busan)
-지성의 펼침展_한국 정예작가초대전 (안산단원전시관_경기도)
-Intelligence's Spreading_Korean Famous Painters Invitation Exhibition (Danwon Art Gallery_Gyeonggi-do)
-한 중 청년작가 한국화 교류전 (中國 엄황미술관_중국)
-Korean-Chinese Young Painters Korean Painting Exchange Exhibition (Yan Huang Art Museum_China)
-韓國의 美와 心 展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_일본)
-Korea's Beauty &Mind Exhibition (Fukuoka Asian Art Museum_Japan)
불회전 (금정문화회관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Geumjeong Cultural Center_Busan)
-2006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세종문화회관_서울)
-2006 The Festival of Young Artis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_Seoul)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전 (SILK GALLERY 주한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_서울)
-Asia's New Leap Exhibition (SILK GALLERY Japan Cultural Center_Seoul)
-전국미술대학 온라인 전시회 (www.artfun.co.kr)
-On-line Exhibition for General Fine Art University (www.artfun.co.kr)
-부산 한국화전 (부산시청전시실_부산)
-Exhibition of Busan Korean Painting (Exhibit Hall, Busan Metropolitan City_Busan)
-오늘의 부산 회화전 (피카소 화랑_부산)
-Today's Busan Painting Exhibition (Picasso Gallery_Busan)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_대구)
-Korean Young Artists Biennale (Daegu Culture &Arts Center_Daegu)

-2005:
-자갈치에서 경복궁까지 (Fifteen 갤러리_서울)
-From Jagalchi to Gyeongbokgung (Fifteen Gallery_Seoul)
-뉴 웨이브2005기획전 (자미원 갤러리_부산)
-Planned Exhibition for New Wave 2005 (Jamiwon Gallery_Busan)
-국제 선면전 (동경도 미술관_일본)
-International Line &Face Exhibition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_Japan)
-일상_숨김없는..전 (갤러리 아리엘_부산)
-Daily_no hidden..Exhibition (Gallery Ariel_Busan)
-부산예고 동문 페스티발 (금정문화회관_부산)
-Alumni Exhibition of Busan High School of Arts (Geumjeong Cultural Center_Busan)
-玄_"스밈과 운필" 展 (아트 인 오리_기장)
-hîen(profundity)-"Permeation &Strokes of the Brush" Exhibition (ART IN ORI/Busan)
-제 17회 한국화 동질성전 (부산 문화회관_부산)
-The 17th Tracing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 (Busan Cultural Center_Busan)
-비전_'현대미술의 다양성' (정동 경향갤러리_서울)
-Vision_'Korean Fine Arts' Diversity (KHAN Gallery_Seoul)
-불회전 (금정문화회관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Geumjeong Cultural Center_Busan)
-2005 BIEAF 부산 국제 환경예술제 (을숙도 문화회관_부산)
-BIEAF-2005 Busan International Environment Art Festival (Eulsukdo Cultural Center_Busan)
-먹빛 형상전_전북회화회-대전-부산 교류전 (전북학생회관_전주)
-Exhibition for Shapes Expressed by the Indian Ink _ Jeonbuk Painting Association Three Provinces Exchange Exhibition (Jeonbuk Student Hall_Jeonju)
-누리나눔_1%의 미학전 (자미원 갤러리_부산)
-Nurinanum-One percent of Aesthetics Exhibition (Jamiwon Gallery_Busan)

-2004:
신인 작가 발굴전 및 공모전 (엄태익 갤러리_부산)
-New Painter Finding Exhibition &Open Competition (UmTaelk Gallery_Busan)
-APEC유치기념 National Amenity Busan 초대전 (을숙도 문화회관_부산)
-APEC Invitation Exhibition (Eulsukdo Cultural Center_Busan)
-불회전 (금정문화회관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Geumjeong Cultural Center_Busan)
-부산 한국화전 (부산문화회관_부산)
-Exhibition of Busan Korean Painting (Busan Cultural Center_Busan)
-일상_숨김없는..전 (갤러리 아리엘_부산)
-Daily_no hidden..Exhibition (Gallery Ariel_Busan)
-신진작가발언전 (세종문화회관_서울)
-New Painters' Utterance Exhibi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_Seoul)

-2003:
-새천년청년작가전 (타워 갤러리_부산)
-New Millennium Young Painters Exhibition (Tower Gallery_Busan)
-불회전(금정문화회관_부산)
-Exhibition 'Bulhwi'_An archaic word of root (Geumjeong Cultural Center_Busan)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3차아파트 302동 1406호 (612-757)
address: Daerim APT. 302-1406, Jwa-dong, Haeundae_gu, Busan, South Korea
m.p: 82-10-4981-9989
e-mail: jimin0728@hotmail.com
군산대, 홍익대, 부산예고 출강함.
현재 부산대 출강중.¶

△김인환 평론글 발췌:

5-2:

화제(畵題)에서도 보듯,

그 당시, 그녀의 현실적 계기로서의 삶의 단상과 반추에 기인한
다리의 교각의 육중함과 역학적 크기를 위해
너른 화면에 그녀로 하여금 중첩된 선조(線條)를 반복적으로 긋게 한 후,
거기에다 역경과 고난, 희망의 감정이 교차하는 한 사람의 존재의 흔적을 각인키 위해서
농묵(濃墨)의 긴點점을 화면의 중간에 떨어뜨리기도 한다◎

<마중과 배웅: 들이지만 혼자인 반복된 여정: 희망의 중첩이 쌓인 고가다리 아랫목>
크기: 세로 210×가로 465cm (세로210×가로93cm_5장=합침)
재료: 한지에 먹, 호분
제작년도: 2012년 10월